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이현옥 · 구양숙

경북대 의류학과 · 경북대 장수생활과학연구소

A Structural Study on Social Self-Efficacy,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yun-Ok Lee and Yang-Suk Ku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Center For Beautiful Aging, 1370 Sankyuk Dong Bukku, Daegu,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fluence of Social Self-Efficacy,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09 women aged for 20 to 50 living in Daegu. The questionnaires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December 20 to 31, 2007. The SPSS 14.0 package was use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a and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utilizing of Amos 5.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appearance concern and the body cathexis. And the social self-effica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econd, appearance concern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u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concern and body cathexis. Third body cathexi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Key words : social self-efficacy,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1. 서 론

시대를 막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리는 자신의 상품가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외모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에 따라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효능감이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기효력감이라고도 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서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자신이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과 개인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여 수행해 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다(이태훈, 2005). 특히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의 강도를 나타내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요인으로, 외모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신체만족도에 관련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외모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있고 자기조절 능력이 있으며, 어려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어 신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전준선, 2006). 외모만족 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외모만족 수준이 낮은 아동들보다 성취효능감, 사회효능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외모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현재 행동이나 미래행동, 과제수행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2007). 이수정(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정미자(2007)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효능감은 외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신감과 외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관련성에 대한 개

Corresponding author; Yang-Suk Ku
Tel. +82-53-950-6223, Fax. +82-53-950-6219
E-mail: yskoo@mail.knu.ac.kr

념정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외모관련 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자기효능감

Zimmerman and Martinez-Pons(1986)는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즉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또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믿음인 동시에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77)이며,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Sherer, 1982)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인간의 사고와 동기, 행동을 지배한다.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요인이다. 외모 또한 객관적인 평가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 두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외모와 관련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외모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준선, 2006; 정미자, 2007),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2007). 또한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미선, 2003).

2.2. 외모관심

외모관심이란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 장신구, 화장 등 신체장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정도(이명희, 이은실, 1997)를 의미한다. 아름다움에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는데 외적인 면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타인과 자신의 비교에 의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외모를 위해 노력(임숙자 외, 2002)하며 미용성형수술을 통하여 신체의 변형을 원하는 여성들도 신체 기능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1992).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정리된 용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으며(이옥희, 1985; 이명희, 이은실, 1997),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불안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은 몸매나 얼굴에 관심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김양진, 강혜원, 1992). 따라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를 매력적인 향상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 향상을 위한 노력과 화장, 헤어스타일, 의복,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Cox & Glick, 1986)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외모만족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인식하게 하여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낳았다. 외모만족이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Secord & Jourard, 1953; 고애란, 김양진, 1996)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인정받은 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에 반영된다(이현옥, 구양숙, 2006).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평가되며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외모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외모만족도가 낮아져 상실감을 가지며, 성형, 화장, 체중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외모향상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전용민, 2003).

2.4.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Goffman, 1961)을 의미하며 개인 각자가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지각하고 자신의 신체적 결과와 외모에 관한 정신적인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모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yerson, 1971).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와의 차이 극복을 위해 의복,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 시키고(Kaiser, 1990), 외모를 자신의 내면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체중조절, 화장, 화장품 구매, 피부관리, 성형, 의복·소품 착용 등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윤소영, 2007).

3. 연구방법

3.1. 연구기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해 보기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하였고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영향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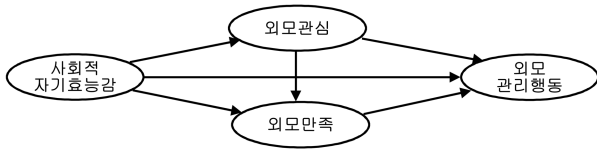


Fig. 1. 연구모형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 H1 :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외모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외모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 외모관심은 외모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 외모관심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 외모만족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된 문항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으로 Sherer et al.(1982)이 개발한 척도를 홍혜영 (1995)이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자의 연구에 맞게 6문항을 5점 Likert 척도법으로 구성하였다.

외모관심 : Cash(1990)의 MBSRQ 척도를 번역하여 국내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김은주(2001), 김광경 외(2001)의 연구에서 22문항을 5점 Likert 척도법으로 구성 하였다.

외모만족 :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차진희(1994)의 외모만족 측정문항에서 발췌하여 연구자의 조사에 맞게 수정보완한 16문항을 5점 Likert 척도법으로 구성 하였다.

외모관리행동 : 외모를 관리하는 다양한 행동에 관한 것으로 이현옥, 구양숙(2006)의 연구에서 발췌한 후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17문항을 5점 Likert 척도법으로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을 위해 AMOS 5.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χ^2 , GFI, AG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4. 분석 및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총 8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76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60부를 제외한 709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26세-35세가 37.0%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35.8%, 결혼 여부는 기혼이 57.7%, 학력은 대졸이상 이 59.2%, 월평균지출은 10-20만원 이하 36.4%,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이하가 40.1%로 높게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의 체계적 검정을 위해 측정항목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먼저 각각의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측정항목들의 단일차원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14.0을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1차 분석에서 내적일관성이 검증된 항목들에 대해 각 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후 연구모형 분석에 사용하였다.

4.2.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측정도구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평균값은: 3.1881, 표준편차: 0.587)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대해서는 측정변수들의 평가 차원 내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수렴타당성을 위해 SPSS 14.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외모관심의 경우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외모만족은 3개요인, 외모관리행동의 경우는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4.2.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에 앞서 먼저 각 요인들의 측정변수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Cronbach's 를 계산하였

Table 1. 측정도구들의 요인분석

측정도구	요인명	고유치	분산(누적%)	신뢰도
외모관심	체중/몸매유지	5.231	32.694(32.964)	.830
	외모 가꾸기	2.102	13.134(45.828)	.779
	미적 추구	1.283	8.018(53.847)	.675
	외모자신감	1.033	6.459(60.305)	.612
외모만족	몸매만족	4.002	36.382(36.382)	.835
	피부만족	2.201	18.373(54.775)	.800
	얼굴만족	1.145	10.407(65.162)	.804
외모관리행동	패션연출관리	3.169	26.412(26.412)	.690
	피부/헤어관리	1.630	13.580(39.992)	.632
	화장품 사용	1.355	11.290(51.282)	.700
	체형관리	1.064	8.863(60.146)	.528

Table 2. 각 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요인	GFI	AGFI	TLI	CFI	RMSEA	χ^2	df	P	Cronbach's α
사회적 자기효능감	0.987	0.965	0.958	0.978	0.059	27.470	8	0.001	0.730
외모관심	0.994	0.971	0.967	0.989	0.067	8.373	2	0.015	0.704
외모만족				포화모형					0.585
외모관리행동	0.997	0.986	0.974	0.991	0.037	3.953	2	0.139	0.528

다.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요인들에 대해 측정변수 간의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별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2>. 모형과 표본자료의 적합성 여부는 χ^2 통계량 ($p>0.05$ 가 바람직)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통계량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른 적합지수 $GFI(\geq 0.9$ 가 바람직), $AGFI(\geq 0.9$ 가 바람직), $TLI(\geq 0.9$ 가 바람직), $CFI(\geq 0.9$ 가 바람직), $RMSEA(0.05\sim 0.08)$ 등을 이용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90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고, 외모만족은 3분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df=0$ 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한 요인에 필요한 변수의 수는 3개 이상이라는 준거에는 합당하며(조선배, 1996), 그리고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김계수, 2004; 권세혁, 2004; Nunnally, 1967)에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개의 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 974.013(df = 113, p = 0.000)$, $GFI =$

0.865, $AGFI = 0.817$, $TLI = 0.661$, $CFI = 0.719$, $RMSEA = 0.104$ 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항목 간 수정지수를 이용한 결과, A1↔A4, 체중/몸매유지↔체형관리, 미적추구↔화장품 사용, 외모자신감↔몸매만족, 외모자신감↔피부만족, 외모자신감↔얼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하여 확장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71.524(df = 1077, p = .000)$, $GFI = 0.943$, $AGFI = 0.919$, $TLI = 0.890$, $CFI = 0.914$, $RMSEA = 0.059$ 로 나타나, 각각의 임계치 기준을 대체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에 대한 모든 요인적재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척도들이 해당 연구 단위들에 대한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 추출값(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한 결과<Table 3> 각 요인들의 개념 신뢰도는 .947, .959, .859, .951, 분산추출값은 각각 .763, .859, .676, .839로 일반적인 추천 기준치(개념신뢰도: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 0.5 이상) 보다 높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은 해당 연구 단위들에 대한

Table 3.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표준 적재치	표준오차	t	p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사회적 자기효능감	A1	.451 ^a				0.947	0.763
	A2	.549	.130	9.321	0.000		
	A3	.794	.144	10.623	0.000		
	A4	.333	.081	8.408	0.000		
	A5	.683	.133	10.248	0.000		
	A6	.487	.117	8.744	0.000		
외모관심	체중/몸매유지	.544 ^a				0.959	0.859
	외모가꾸기	.847	.106	13.884	0.000		
	미적추구	.628	.087	12.309	0.000		
	외모자신감	.503	.080	10.625	0.000		
외모만족	몸매만족	.427 ^a				0.859	0.676
	피부만족	.640	.250	6.858	0.000		
	얼굴만족	.603	.209	7.014	0.000		
외모 관리행동	패션연출관리	.657 ^a				0.951	0.839
	피부/헤어관리	.597	.062	11.140	0.000		
	화장품사용	.365	.067	7.718	0.000		
	체형관리	.332	.069	7.226	0.000		

a: 경로계수 초기값을 1로 고정

Table 4.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

	평균 분산추출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
사회적 자기효능감	0.763	1.000			
외모관심	0.859	0.536	1.000		
외모만족	0.676	0.191	0.177	1.000	
외모관리행동	0.839	0.339	0.794	0.225	1.000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5).

4.2.3. 판별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요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의 존재여부는 각 요인들 간의 상관행렬과 평균분산추출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한 평균분산 추출값이 두 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면 두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각 요인들에 대한 판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 평균 분산 추출값의 범위는 .676~.859로 상관관계 제곱 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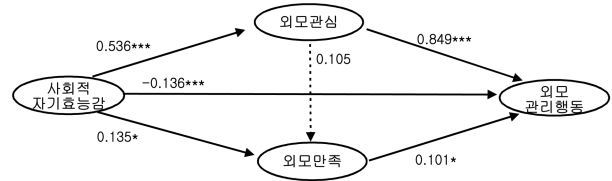
4.2.4. 연구모형 검증

요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 = 974.013$ (d.f.= 113, p= 0.000), GFI= 0.865, AGFI= 0.817, TLI= 0.661, CFI= 0.719, RMSEA= 0.104로 나타났다. 이것은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지수를 이용한 결과 A1A4, 체중/몸매유지↔체형관리, 미적추구↔화장품 사용, 외모 자신감↔몸매만족, 외모자신감↔피부만족, 외모자신감↔얼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하였다. 상관관계를 추가하여 수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71.524$ (d.f.=107, p=0.000)이고, GFI= 0.943, AGFI= 0.919, TLI= 0.890, CFI= 0.914, RMSEA= 0.059로 나타나 각각의 임계치 기준에 만족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통계량과 자유도를 이용한 수정 전과 후의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수정모형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602.489$ (974.013-371.524), Δ d.f.= 6(113-107), p = 0.000).

Table 5.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모형 분석결과
H1	사회적 자기효능감 → 외모관심	0.536	0.060	7.692***	채택
H2	사회적 자기효능감 → 외모만족	0.135	0.041	2.111*	채택
H3	사회적 자기효능감 → 외모관리행동	-0.136	0.077	-2.275*	채택
H4	외모관심 → 외모만족	0.105	0.049	1.555	기각
H5	외모관심 → 외모관리행동	0.849	0.126	10.154***	채택
H6	외모만족 → 외모관리행동	0.101	0.097	2.115*	채택

* p<0.05, *** p<0.001



숫자: 경로계수, * P<0.05, *** p<0.001, 실선: 유의적 경로, 점선: 비유의적 경로

Fig. 2. 가설 검증결과 모형

4.2.5. 연구가설 검증

각 단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심과의 유의한 영향력을 예측한 가설1의 검증결과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심 사이의 경로계수는 0.53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t=7.692, p=0.000),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에서도 경로계수는 0.13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2.111, p=0.035),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만족 사이의 경로계수도 -0.13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t=-2.275, p=0.023). 따라서 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외모관심과 외모만족간의 유의한 영향력을 예측한 가설 4의 경우 경로계수는 0.105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1.555, p=0.120)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외모관심과 외모관리행동 사이의 경로계수는 0.849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t=10.154, p=0.000), 외모만족과 외모관리행동 사이의 경로계수도 0.1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2.115, p=0.034) 가설 5와 6은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자신감을 말

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 간에는 밀접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외모관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다(Bandura, 1977). 또한 외모는 감정적,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문혜경, 유태순, 2001) 나타나, 외적으로 표현되는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신체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수정(2004), 정미자(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자신감이 높다는 것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으로 두 구성개념은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자신감의 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에 중요한 변인인 외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게 되고 외모관리행동의 정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외모관심이 외모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반드시 외모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대생들의 외모관심의 정도가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김은주(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외모관심이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특히 외모관심은 외모관리행동에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대생일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김은주(2001)의 연구와 외모관심도가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정지영(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여섯째, 외모만족이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사회문화적 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과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중조절, 화장, 화장품 구매, 피부관리, 미용성형, 의복의 착용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외모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

리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체 관련 산업 마케팅 담당자는 판매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영역과 만족 부분을 파악하고,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 프로모션전략과 시장세분화 전략 수립에 이용한다면 소비자 만족수준의 증가와 재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기에 연구의 결과가 표본의 특성에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료수집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p. 160.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김양진, 강혜원. (1992).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 연구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기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권세혁. (2004). *SAS, SPSS 활용 설문조사 분석*. 자유아카데미. p. 168

문혜경, 유태순. (2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성향 및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5), 77-94.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명희, 이은실. (19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1072-1081.

이수정. (2004). *여대생의 대인불안, 자기효능감 및 신체상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숙. (2007). *초등학생의 외모만족과 성이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희. (1985). *노년기 여성의 의복선호와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태훈. (2005). *특기, 적성교육이 남자 중학생의 신체만족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이현옥, 구양숙. (2006).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8(1), 113-122.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2002). 현대의상사회심리학. 수학사, p. 200.

장미선. (2003).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용민. (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준선. (2006).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자. (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가정환경, 신체만족도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선배. (1996). *구조방정식모델*. 영지문화사. pp. 57-58.
- 차진희. (1994). *Body Image, Genderlogy, 의복 性 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2(84)
- Cox, C. L., &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 14, 51-5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39-50.
- Goffman, E. (1961). Identity kits In M. E. Roach & J. B.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p. 246).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4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pp. 642-654.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 157-167.
- Myerson, L. (1971). Somato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In W.M. Cruickshank (Eds.),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pp. 1-7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Nunnally, J.C. (1967). *Psychometric Theory*(2nd ed). McGraw-Hill. 199-206.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 Zimmermann, B. J.,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614-623.

(2008년 12월 21일 접수/ 2009년 1월 8일 1차 수정 /2009년 3월 13일 게재확정)